



“감히 禪을 사랑합니다”

가톨릭신자 김경수씨가 쓴 '영신수련과 禪'

禪의 정신으로 서구문화 재해석 성서에 감히는 한계 禪통해 극복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은 더하시절 종교적 체험에서 비롯됐다. 이 체험 후 그리스도 신자가 돼 성서를 접하면서 도 체험이 왠지 낯설기만했다. 무엇인가 부족하고 설익은 느낌을 지울수가 없었던 차에 우연히 불교의 선을 만나게 됐다. 편안하고 친숙하게 다가왔다.”

경기 안산에서 영성지도활동을 하고 있는 가톨릭교도인 김경수씨가 최근 펴낸 《영신수련과 선》(가톨릭 출판사 刊)은 자신의 화두였던 이 같은 의문에서 출발, 불교의 선을 통해 그리스도교를 설명하면서 동서양 종교의 만남을 이뤄내고 있다. 불교의 선에서 서구인들이 느끼는 종교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이 책에서 펼쳐 보이고 있는 것이다.

김씨는 95년 파리 샹트르 세브르 신학원 유

학중 제도화된 교회의 틀에 대한 거부감과 함께 격식있는 수행을 강조하는 선에 대한 서구인들의 높은 관심을 느꼈다. 그러나 서구인들은 관심만큼 이해는 매우 부족했다. ‘선을 서양적 사고방식의 해석을 토대로 알린다면 성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연구자임을 통해 실천에 옮겼다. 김씨는 선과 가톨릭의 수행방법을 비교 고찰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거기에서 선이 가지는 특이점을 설명하고자 했다.

“내게는 서양적 개념의 영혼이라는 말보다는 불교적 개념인 마음이란 단어가 더 친숙하게 다가온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나는 1500여년의 불교적 문화전통 영향 아래서 살아가고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불교적이다.” 저자는 책 서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통해 자신 속에 있는 불교적 요

소를 밝힘과 동시에 선의 정신을 통해 서구 그리스도교적 문화를 재해석해야 한다는 명제를 풀어내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선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있다. 그리고 선의 역사와 공(空)체험의 원리, 돈오점수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나열하고 있다. 일례로 부대사(497-?)의 시와 성경 창세기 1장의 시에서 전반부의 유사점과 후반부의 차이점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 선적 깨달음과 그리스도적 깨달음의 특성을 제시했다. 또 불교의 돈오·점수 논쟁과 그리스도교의 정통과 본질에 관한 신앙·율법 논쟁을 비교하면서 돈오점수 논쟁은 공체화의 오해때문에 빚어졌을 뿐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해 있는 것이라는 해석을 가했다. 공체법이 돈오에서는 처음에

놓이지만 점수에서는 마지막에 놓이며, 이는 야생과 양육의 차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영신수련과 선의 비교에서는 진리를 체험에서 체험으로 전수하는 선과 체험을 이론화해 전수하는 그리스도교적 방법은 분명히 다르며, 선의 수행방법은 영신수련 안에 드러난 그리스도교적 진리를 재발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저자는 선과 영신수련의 차이점은 ‘화두’와 ‘죄’를 수행이라는 전체적인 눈으로 연결시켜 보면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김씨는 “기독교는 체험을 언어화할 수는 있으나 언어화된 것을 체험할 수는 없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성서에 감히는 한계를 선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종교 내종교를 따지는 여러식음으로는 서로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한국불교의 선은 분명 우수합니다. 감히 선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고 토로한다.

서울대 은원철 교수(종교학)는 이 책에 대해 “선과 기독교의 한계만 명확히 구분하면 비교자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우 기자

無衣子詩集 유영봉 번역

진각국사 '무분별지' 선사로 감상

성균관대학 등에서 강의 받고 있는 유영봉씨가 《무의자(無衣子)시집》번역본을 냈다. 《무의자 시집》은 고려 무신 집권기의 불교계를 이끌었던 진각해심국사(1178~1233)가 남긴 시집으로 상·하 2권의 필사본이다. 어려운 한자에 대한 뜻을 덧붙여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책 말미에는 무의자 시집본과 함께 원문도 실려있다.

무의자(無衣子)는 진각해심국사의 호(號)로 《무의자시집》에는 무분별지(無分別智)를 획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행정진에 몰두했던 스님의 변모가 아름다운 시어로 담겨있다. 《을유문화사 1만2천원》

한제의책

두려워하면 갈혀버린다 이거통 지음

인도사상서 찾는 현실극복 의지

“당신은 진정 체념본 적이 있는가.” 저자는 책 첫장에서 이같은 명제를 던졌다. 익숙하던 길이 낯설고 불안한 현재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거통박사(동국대 인도철학과 강사)의 《두려워하면 갈혀버린다》는 IMF하루로 얼룩진 시대상황속에서 인도사상이라는 렌즈를 통해 극복의지를 찾고 있다.

수필형식의 이 책은 ‘삶을 묻는 자는 삶을 걸고 있다’ ‘무상한 것이 아름다운 이유’ 등 각각의 주제를 인도철학 속에 녹여 궁극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명진출판 6천8백원》

한제의책

“불보살명호 의미 아시나요”

이윤수씨 '불보살이야기' 발간

절에서 자주 접하고 기도하면서 도 각 전각에 모셔진 부처님은 누구이며, 그 속에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불교방송과 KBS 방송작가로 활동 중인 이윤수씨가 펴낸 《불보살명호이야기》는 경전속에 나타난 여러 부처님과 보살에 관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놓은 책이다. 불자들이 자주 접하는 28분의 부처님을 비롯해 관세음보살,地藏보살 등 9분의 보살님과 십육나한, 오박나한 등 12분의 호법신중, 마하가섭과 아난 등 부처님의 십대제자가 모습을 보인다. “아! 이런 분들도 있었구나” 알지 못했던 부처님을 만난 반가움에 불교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한다.

이 책은 불보살 명호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함께 40여 컷의 사진으로 어렵게만 느껴지는 불교를 우리 생활에 한발짝 더 가깝게 접근시키고 있다. 특히 시종 잔잔하고 섬세한 문체의 명쾌한 해설은 저자의 절절한 불심도 함께 느낄 수 있게 한다.

“이 책은 법당 안에만 계시는 부처님을 우리 마음 곁으로 오시게 했다.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부처님을 우리와 같이 낮은 곳에 머물게

했다”는 실사사 주지 도법스님이 발문이 이 책이 갖는 의미와 깊이를 느끼게 한다.

저자 이윤수씨는 KBS TV ‘고려대장경’ ‘석굴암’과 불교TV ‘황동사 대종을 찾아서’ 등의 원고를 집필했으며, 저서로는 《천년 세월을 엮는 사람들》이 있다. 《민족사 7천원》

조계종 '현토 삼국유사' 펴내
강원·연구단체 등에 배포

일연스님의 《삼국유사》는 우리나라 고대의 역사·지리·문학·종교·언어·사상·미술 등 문화유산의 원천적인 보고(寶庫)로 평가되는 소중한 문헌이다. 더욱이 삼국시대의 찬란한 불교정신과 문화, 신앙이 어우러져 장엄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일반은 물론 스님들조차도 《삼국유사》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공부에 소홀해 왔다. 원문을 그대로 읽기에는 웅만한 한문실력으로도 쉽지 않은 이유도 있다.

물론 번역본도 많이 나와 있지만 원문을 대하는 쾌감은 공부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참

맛이 있다.

은혜사 승가대학원원장 현토작업을 하고 승가대학원장 무비스님이 감수한 이 책은 권제5까지 토를 달며, 현대감각에 맞게 띄어쓰기까지 돼 있어 읽기에 편하도록 돼 있다. 승가대학원 학인들이 음독하며 토를 다는 작업을 한지 1년여만에 이룬 결실이다.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함적스님은 “우리 역사와 불교사에 중요한 자료임에도 소홀히 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강원에서는 강의부교재로 쓰도록 하고 일반대학과 불교연구단체에도 배포해 불교의 역사와 우수성을 알릴 생각”이라고 발간의미를 설명했다. 《조계종 교육원 9천원》

◆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 어시어트 집게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립
2	삼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 을 순	신 우 당
3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6가지	성우·지현	민 족 사
4	금강경대강좌	이 제 열	여시아문
5	선(작은 책2)	석 지 현	민 족 사
6	부처님이 계신다면	탄 허	교 립
7	무소유	법 정	법 우 사
8	수행으로 가는 길	이 제 열	대원정사
9	불교입문(신도입문서)	조계종총무원	조계종포교원
10	마음알기 다루기 나누기	용 타	대원정사

구입문의: (02)737-0695

새로운 책

▲선현들의 자(字)와 호(號)= 강현규교수의 《한국의 자(字) 및 아호(雅號)》와 신용호교수의 《선대사류(先代士類)의 자호(字號)연구》 두 논문을 합본해 수정 보완해서 단행본으로 엮었다. 우리 선현들이 이름대신 사용했던 ‘字’와 ‘號’는 전통 문화라는 인식을 토대로 자호(字號)의 의미와 성격, 작호(作號)의 경향과 작호법칙, 명(名)·자(字)·호(號)의 상관성 등이 설명돼 있다. 《전통문화연구원 8천원》

▲무상의 흔적들=서울대 철학과 소상희 교수가 자신의 60년 여정을 고스란히 담은 수상록. 자연과인과 인간성상실, 정치·경제·문화의 타락에 대한 질타와 함께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비판을 서민의 애환과 정서에 호소하고 있다. 자신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스승 고흥공손에 대한 애정과 존경의 표현이 애뜻하게 다가온다. 《운주사 7천원》

▲추억 가까이=파산지경으로 내몰리는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어머니의 품 같은 추억을 안겨주는 소설로 해방 직후, 지방도시

변두리 마을 ‘서산 밑’에 살고 있는 네 살짜리 아이가 열두살 소년으로 성장해 새로운 세계를 향해 출발하기까지의 기억을 드라마처럼 풀어내고 있다. 196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손춘익씨의 첫 장편소설인 이 책은 따뜻한 이야기가 없는 요즘 세대들에게 한민족은 변잡한 세상살이를 멈추고 유년과 고향의 추억에 잠기게 해 준다. 《책만드는집 6천5백원》

▲명리학 인문인답=대원불교대학을 졸업하고 삼공명리철학원장과 삼공출판사 대표인 조성우박사가 자기에 매인 부귀빈천의 복분을 알아 그에 적절한 분수도 지키고 뜻도 세워 후회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초로 삼길 바라는 뜻에서 출간했다. 《관음출판사 1만2천원》

인류 미래위한 달라이라마 메시지

198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티베트의 불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인류의 미래를 위해 보내는 순수한 영혼의 메시지를 담은 책.

종교관련 15권의 책을 저술한 매튜 번슨이 썼으며, 전문 번역인 김기홍, 이상훈씨가 함께 옮겼다.

티베트의 풍물, 자연, 달라이 라마를 담은 사진 50 여컷을 달라이 라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인간성상에 대한 문제제기와 티베트에 안고 있는 아픔을 그려냈다. 특히 제3장 ‘달라이 라마의 현명한 가르침’에서는 환경 파괴, 평화, 사랑 등 인류의 영원에 화두를 불교적 시각에서 해석하고 접근한 달라이 라마의 놀라운 식견을 전달하고 있다. 《도서출판 해음 8천원》

명산고찰의 사찰음식을 대중건강식으로

30년 연구의 결실, 필생의 역작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미국 등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진 국내 최고의 사찰음식 연구가 김연식의 30년에 걸친 자료 수집과 연구의 결실인 15년간의 승려생활 동안 전국 주요 사찰의 조리법을 익힌 저자의 피와 땀으로 엮은 필생의 역작.

한국사찰음식의 주옥편

이제까지의 신문이나 여성지, 여성책이나 요리책에서 광범하게 소개된 사찰음식의 파편들이 아닌 우리나라 사찰음식의 정수만을 모아서 욕구충족 못듯 정성스레 엮은 한국사찰음식의 주옥편

한국사찰음식

산사의 솔향기 가득한 유명 사찰음식 총망라

유서깊은 산사에는 독특하고 유명한 사찰음식이 전해 내려오는 법 승사서 해산사·범사서 직사서·봉국사·범사서·해남대흥사·홍도사·신봉사·상원사 등의 일로만 전해 물려 유령 사찰음식 220여 가지를 체계적으로 분류, 요리법과 생생한 컬러 사진 수록

반양장 150면 / 값 12,000원

우리출판사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8
Tel: 313-5047, 313-5056 Fax: 393-9696

5,200여 한국 사찰의 역사 집대성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한국 사찰의 어제와 오늘!

▶18년에 걸친 편찬작업
(한국사찰보감)은 한국사찰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국내외 모든 사찰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5,200여 사찰의 어제와 오늘을 집대성했다. 편자 이종승 선생(前국립대 고전실 근무)의 18년에 걸친 자료조사와 발굴 정리 작업, 까다로운 편찬작업을 거쳐 완간된 《한국사찰보감》은 한말(1910년)까지 국내에 간행 또는 유적을 가진 사찰 5,200여 곳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편집 수록했다.

▶일목요연하게 편집된 한국 사찰의 어제와 오늘
5,200여 한국사찰의 사찰명, 사찰 위치, 연혁, 설화, 부속일지, 유형문화재, 유적 및 천연기념물, 담보 부도등, 모든 참고문헌류를 수록했다.

▶불교사상과 고승 연구의 길잡이
(한국사찰보감)에 수록된 연혁이나 소장 문화재 등에 대한 기록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며, 흥미롭고 교육적인 성취나 기록 통해서는 불교사상과 고승에 대한 연구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韓國 寺刹寶鑑

佛名辭典

우리나라 최초의 불명사전!

▶국내 최초의 불명사전
1,420개 (거사 불명 700개, 보살 불명 720개)의 불명에 대한 해설 수록

▶불자들의 불심 고양을 위해 꼭 필요한 책
故 고승은 스님이 생전에 세인들의 불심 고양을 위해 기획한 후 7년에 걸친 작업 끝에 우리나라 최초의 불명사전으로 간행

▶불명 짓는 법 수록
생년월일에 맞추어 불자들 스스로 자신의 불명을 직접 지을 수 있도록 불명 짓는 법을 수록하였다. 신도들도 그 의식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제식의 순서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다.

우리출판사
전화 (02)313-5047, 5056
팩스 (02)393-9696